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0 회 춘계대회 보고

전국대회운영위원 춘계대회담당
오카다 신이치(오사카공립대학)

대회 주제 :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어프로치를 요구하며

개체 일시 : 2022년 5월 29일(일) 13:00~17:30

회장 : WEB 개최

2022년 5월 29일(일) 13:00~17:30에 일반사단법인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0회 춘계대회가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어프로치를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개최되었고, 코로나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웹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쿠가 히로토 학회장의 개회 인사를 시작으로, 일본사회복지학회 2021년도 학술상을 수상한신 두 분의 수상기념강연이 있었습니다. 먼저, ‘소셜워킹은 마이너리티를 어떻게 인식해 왔는가 - 제도적 인종차별과 미국사회복지사(史)’를 주제로 니시자키 미도리 씨(쿠마코토가쿠인대학)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히라노 타카유키 씨(일본복지대학)의 ‘지역복지 매니지먼트 지역복지와 포괄적 지원체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강연은 이해하기 쉬웠으며 향후 사회복지실천의 전망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상 수상자 강연에 이어서 ‘격차사회 해소를 위한 어프로치를 요구하며’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되었습니다. 심포지스트는 아베 아야(도쿄도립대학), 콘도 나오키(쿄토대학), 코멘테이터(commentator)는 카키타 유스케(오사카공립대학), 코디네이터(coordinator)는 오카다 신이치(오사카공립대학)가 맡았습니다.

첫번째로, 아베 아야 씨는 ‘허용될 수 없는 격차란 - 아동의 격차로부터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격차와 빈곤의 차이, 2000년 이후 일본의 격차 확대의 경향분석, 격차 문제에 대한 논점 정리, 아동 격차의 현실 등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격차는 상대적 빈곤과도 관련이 있으며, 국내외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라 격차는 아이들의 웰빙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관련된 실증연구 수가 적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격차는 스스로 증장(增長)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자기방어 경향이 있는 일본사회에서의 격차는 앞으로도 확대되어 가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학회에 있어서도 빈곤과 격차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시며 발표를 마치셨습니다.

두번째로, 콘도 나오키 씨가 ‘격차 해소를 향한 복지와의 연계’라는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공중위생학에서의 건강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포플레이션

(population) 어프로치, 포플레이션 어프로치에 대한 비판, 일본 노년학적 평가연구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 동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지역포괄지원시스템의 내용, 건강격차 시정을 위한 지역 만들기의 구체적 사례 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처방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의료 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유니버설 환경 만들기를 실시하면서 복지와 의료의 적절한 연계를 수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카키타 유스케 씨로부터 각 발표에 대해 논점정리와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 후 참가자들의 질문이 이어졌고, 본 대회를 통해 일본사회의 격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본 의미 있는 심포지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쇼 토모코 부회장의 폐회 인사를 끝으로 제 70 회 춘계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협력해 주신 회원 및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0 회 추계대회 개최 안내

실행위원장 츠다 코이치 (관서복지과학대학)

이번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0 회 추계대회를 관서복지과학대학에서 10 월 15 일(토) · 16 일(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학회의 임원 및 사무국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지원과 협력을 받으면서 본대회의 개최를 위해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대회에서는 감염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대면을 기본으로 하며, 일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줌 웨비나를 통한 라이브와 ‘온 디맨드(on-demand)’ 방식을 병용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먼 곳이나 자택에서도 참가가 가능하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길 조직위원회 일동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 대회의 테마는, “새로운 일상과 사회복지-‘유대’(つながり)의 미래를 주시하며-”입니다. 대회 개최요에서 기획한 심포지엄으로서, 다양한 영역의 관점에서 대회 테마에 대해 논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의 일상성에 대해, 지금까지 겪어왔던 수많은 재해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계기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변화하고 새로운 생활양식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사회복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중요해지고 있고,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직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공생사회의 실현과 함께 사람과 사람 간의 유대가 중시되고 있지만, 인간관계의 희박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를 키워드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전문직의 존재와 역할을 재고하고,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생각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전문직은 ‘에센셜 워커(essential-worker)’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문직이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일본사회복지학회에 있어서도 커다란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사회와 국제 정세 속에서, 지역공생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복지 연구자 및 실천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 관계자 분들이 함께 참가해 주셔서 사회복지 전문직의 역할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대회에서는 ‘유학생과 국제비교연구를 위한 워크숍’, ‘스타트업 심포지엄’, ‘학회 기획 섹션’, ‘특정 과제 섹션’,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등 지금까지 해왔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특정 과제 섹션의 참가 신청은 150 건 이상을 넘었고 다채로운 연구성과에 대한 기대가 큼니다.

본대회를 개최하게 된 오사카부(府) 동부에 있는 관서복지과학대학은 오사카의

중심지에서 대중교통으로 한시간 거리에 있고, 조용하고 한가로운 분위기의 주택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3 년만의 대면형식으로 학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초기 커리어 연구자 네트워크 “CS-NET” 의 운용 개시를 향해

연구지원위원회 위원 시마자키 츠요시 (쿠루메대학)

2022 년 3 월에 발행한 학회 뉴스 89 호에서 소개한 초기 커리어 연구자의 네트워크 “CS-NET” 이 지난 3 월 21 일 창설 기념 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CS-NET 창설 기념 이벤트는 학회 내외에 소식을 알리고, 학회에 의한 초기 커리어 연구자에 대한 연구 지원의 일환으로서 CS-NET 의 의의를 제안하고 찬동을 얻기 위한 중요한 기획이었습니다. 본 이벤트는 초기 커리어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현재 상황이나 과제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네트워크 형성의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2 부 구성(제 1 부 : CS-NET 소개 · 초기 커리어 연구자의 릴레이 토크, 제 2 부 : 정보교환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온라인 개최가 주효하였는지, 핫카이드부터 큐슈까지 전국 각지에서 80 명이 넘게 참가하였습니다.

제 1 부 릴레이 토크에서는 초기 커리어 연구자 3 명으로부터 현실적이면서 절실한 상황에 대한 화제 제공이 있었습니다. 제 2 부 정보교환회에서는 참가자가 그룹으로 나뉘어 제 1 부에서 제시된 화제를 바탕으로 활발한 정보교환 ·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참가자로부터는 초기 커리어 연구자로서의 고뇌를 공유한 것에 대한 안도감 · 만족감 뿐만 아니라 고뇌를 떠안으면서도 계속해서 고민하며 연구하는 다른 참가자들에게 자극을 받고 격려가 됐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초기 커리어 연구자가 놓여있는 환경과 떠안고 있는 과제는 사회복지학 영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초기 커리어 연구자는 시간적 제약과 불안정한 상황 등 특유의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한편, 착실한 연구 수행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이벤트는 이러한 상황 · 환경에 놓여진 초기 커리어 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으로서 CS-NET 의 활용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 이벤트에서는 연구지원위원회 위원 이외에 11 명의 초기 커리어 연구자가 운영 담당으로 협력해 주었습니다. CS-NET 는 네트워크 참가자의 주체적인 노력을 끌어내는 플랫폼으로서의 기능도 기대되기 때문에, 활동을 통한 연구력 · 발상력 · 기획력 등의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도 연구지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CS-NET 의 주체적인 참가를 촉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지할 예정입니다.

현재 연구지원위원회의 CS-NET 운영 담당에서는 홈페이지와 메일리스트의 운용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설 기념 이벤트에서 모은 다양한 의견을 참고로 하여, 초기 커리어 연구자가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연구 조성과 논문 집필,

라이프 코스 등에 대한 좌담회 등의 기획, 연구 윤리에 관한 기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본사회복지학회 제 70 회 추계대회에서는 스타트업 심포지엄 ‘연구를 중단하지 않기 - 다양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CS-NET 에 대해 초기 커리어 연구자는 물론이거니와 많은 회원 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監訳

鄭 熙聖 (關東学院大学社会学部現代社会学科准教授)

翻訳

朴 東民 (立教大学大学院コミュニティ福祉学研究科コミュニティ福祉学専攻博士課程後期課程)

번역 감수

정희성 (관동학원대학 사회학부 현대사회학과 준교수)

번역

박동민 (릿쿄대학대학원 커뮤니티복지학연구과 커뮤니티복지학전공 박사과정)